

호남출신 정세균 대권 출사표

총리직 마치고 여의도 귀환

민주당 대권구도에 변화 예고

정권 재창출 '용광로' 만들지 주목

호남출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1년 3개월간의 총리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귀환했다.

〈관련기사 4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리직을 사퇴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해 그가 대선 도전에 나선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음 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 되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여의도 복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가 제동이 걸린 시점에 이뤄져 여론의 대권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은 물론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 안정적 관리형 이미지 등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상호 보완적이지 아닌 절대적 경쟁 관계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는 이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 치명상이, 정 전 총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두 전직 총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선 정 전 총리가 쇄신론을 두고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론의 현실에서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균형추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정치 경험 등을 토대로 내부 결집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용광로 경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



새로운 출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각 부처 장관 및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일이 급선무다. 민주당 경선 일정(9월 초)을 고려하면 최소한 7월까지의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여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항마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내의 SK(정세균계) 그룹과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공조를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뒷받침되어야 정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당원 등 당내 세력에 강점을 지닌 정 전 총리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지지도는 자연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리에 김부겸 ... 5개 부처 개각

국토 노형욱·산자 문승욱

고용 안경덕·해수 박준영

과기 임혜숙 지명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 번째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중폭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 단행했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후폭풍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정세균 총리에 이어 마지막 총리 역시 정치인인 김부겸 후보자를 택했다.

〈관련기사 4면〉

김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협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되는 등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당내에서도 친문, 비문 등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통합형이다. 정무감각이 뛰어난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임기 말 당·청 갈등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아 안정적 국정운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5개 부처의 장관을 관료 및 전문가로 채우며 사실상 마지막 내각 진용을 꾸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 4명의 후보자는 모두 행시 출신 관료로, 지난해 말과 올 초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인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발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임시 사무실에서 마련된 금융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인사에선 대대적인 개편보다 핀셋형 쇄신을 택했다.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최재성 정무수석의 후임에 여권 내 비문인 이철희 전 의원을 발탁해 여권 내 통합과 균형을 꾀했다. 또 청와대의 코로나 관련 정책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뒀다.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앉히고,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대변인에, 서상범 선임행정관을 법무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립 의과대학·부속병원 유치 전남도, 밑그림 그리기 나섰다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가 정부로부터 국립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송상락 행정부지사와 전라남도 의과대학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과 함께 전남지역 의료현실을 반영한 최적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대설립 확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상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정에서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의·정 합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가 코로나19 안정화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다.

다행히 정세균 전 총리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정부 의지 변함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권덕철 복지부장관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부처의 의지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라도내 국립 의대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송 부지사는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방안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공공주택

잘가라 수입페트병 반갑다 우리페트병

투명 PET병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 해주세요!

음료와 생수에
사용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법

- 내용물은
짜~악 비우기!
- 라벨은
척!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파~악 두껍 달기
- 투명 페트병
전용함에 배출하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